

보성군,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는 보성차(茶) 3종 싱가포르 수출

4만 달러 상당 싱가포르 고주힌(GJH) 수출 상차식 가져 “세계인이 즐기는 보성차 만들어 실질 소득 향상에 도움”

보성군은 17일 옹치면 강산농원 영농조합법인인 생산한 보성차(茶) 블렌딩 3종(그린티, 블랙티, 허브티)을 싱가포르 고주힌(Goh Joo Hin Pte Ltd)사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출 상차식에는 보성군 김규웅 부군수를 비롯한 보성농협 선지영 지부장, 차산업연구소 최정 소장, 팬지데이지(주) 권윤상 대표, 강산농원 김영민 대표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첫 납품 물량은 약 4만 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보성군과 싱가포르 고주힌, 팬지데이지(주)와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정 특량만에서 자란 보성차(녹차, 홍차)와 허브차를 베이스로 블렌딩하여 개발한 제품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내 백화점 및 마트에서 유통된다.

보성군은 금전 3종 차(茶) 수출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고주힌과 함께 보성의 우수 농특산물 수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주힌사의 '뉴문(New Moon) 브랜드 65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계획 중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뉴문(New Moon) 브랜드로 유명한 고주힌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게 돼 한국차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맛 좋고 품질 좋은 차를 생산해 세계인이 즐기는 보성차를 만들어 차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의 '고주힌'은 1940년도에 설립해 식품 유통을 비롯하여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대 시장을 선도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 기업 중 하나로 '뉴문(New Moon)' 브랜드가 유명한 업체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순천시, 바이오 산업화 수익화 모델 토론회 개최 승주 바이오산업 전진기지에 구축...운영방향 등 다각적 검토

순천시가 최근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순천시 바이오 생산시설 구축과 효율적 운영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승주 바이오산업 전진기지에 구축될 바이오산업 생산시설의 구축과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기업, 대학, 관련 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산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경욱 (재)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국장장 김승주 테이앤바이오 대표이사의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순천 바이오 산업 생산시설 구축과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사전 컨설

턴트의 중요성과 장비 설계 시 특화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생산시설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추후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재양성, 수익창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글로벌 생태도시 순천시만의 강점을 활용하여 바이오산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승주읍 일원을 바이오산업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선제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주읍에 위치한 (구)승주군청 일원은 전라남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와 30개 기업이 입주하여 저렴한 임대료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지식산업센터'가 동시에 추진 중인 순천시 미래 신성장 동력이 집적화된 곳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고흥에 머뭄) 참가자 모집 고흥 체류여행 프로젝트...1일 최대 15만 원 지원

고흥군이 체류여행 프로젝트인 '2024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고흥에 머뭄> 참가자를 모집한다.

<고흥에 머뭄> 프로젝트는 체류 여행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고흥 곳곳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SNS 등 온라인 매체에 홍보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고흥에 머뭄> 참가 신청은 오는 5월 2일까지이며,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광주·전남

지역 외 거주자로 고흥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흥군은 여행 홍보계획, SNS 활용 능력, 홍보 능력 등을 검토해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여행작가, 예술가, 블로거, 유튜버 등 고흥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우대 선정한다.

프로젝트 참가자는 7~10일의 기간 동안 1일 기준 ▲숙박비 팀당 8만 원(2인까지 8만 원, 가족(3인 이상)의 경우 16만 원) ▲교통비 팀당

최대 2만 원 ▲식비 인당 최대 3만 원 ▲체험비 인당 최대 2만 원 등 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팔영산 편백숲 치유프로그램, 분청사기 도예 체험,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남해해돋이해수욕장 서핑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고흥에서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사람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고흥군 관광정책실(☎061-830-5658)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시, '르네상스 시민운동' 연계 물가안정 캠페인 펼쳐

소비자단체 등 70여명 참여...바가지 요금 근절·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여수시는 지난 16일 학동 선소상가 일원에서 '여수 르네상스 진절 실천 시민운동'과 연계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한국부인회 등 소비자단체, 외식업·숙박업 관련 위생단체,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추진됐다.

학동 선소상가 주변을 돌며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가격표시제 준수 등 진절한 손님맞이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물가 안정 참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으며, 캠페인은 박람회 개최 전까지 매일 권역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속 자생단체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